

K뷰티 中企 등용문 'CJ올리브영' IPO·지주사 합병 등 기대감 증폭

작년 매출 3.9조 사상 최대규모
입점 브랜드 '100억 클럽' 30%↑

클렌우드 지분 절반 재매입 결정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반 마련
지주사인 CJ(와) 합병 가능성도



CJ올리브영 '명동 타운' 매장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직원에게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뷰티 업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IPO 상장, 지주사와의 합병 등 다양한 경영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 K뷰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하고 있는 CJ올리브영 지분 22.6% 가운데 절반인 11.3%를 재매입하고 있다. CJ올리브영과 글랜우드는 오는 4월 중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랜우드는 지난 2021년 CJ올리브영 지분 22.6%를 41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CJ올리브영 기업가치는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CJ올리브영이 11.3%의 지분을 얼마에 재매입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현재 CJ올리브영 기업가치를 살펴보면 글랜우드가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CJ올리브영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따른 분석이다. CJ올리브영 매출은 2021년 2조원 돌파, 2022년 2조7775억원에 이어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3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4660억원, 순이익은 3473억원이다.

특히 CJ올리브영이 지난 몇년 간의 사업을 통해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시

장을 평정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경쟁 업체였던 GS리테일의 '탈라블라'와 롯데쇼핑 '롭스'의 경우 지난 2022년 말 모든 점포를 정리했다. 이마트가 지난 2017년 들여온 영국 1위 헬스앤뷰티 브랜드 '부츠'도 국내 사업 3년여 만에 매장을 닫았다.

세계 최대 뷰티 편집숍으로 유명한 '세포라'도 오는 5월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 세포라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몰에 1호점을 내며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진출한 바 있다.

반면, CJ올리브영의 매장은 1300여 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CJ올리브영은 신진 뷰티 브랜드 발굴, 온라인 채널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뷰티 업계에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어 갈수록 입점 기업과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CJ올리브영 입점 브랜드 중 지난 2023년 100억원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한 '100억 클럽'에 해당하는 브랜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같은 기간 CJ올리브영이 집계한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 중 국내

중소 브랜드는 7개다. 이에 대해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산업에서 CJ올리브영의 경쟁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뷰티 업계는 CJ올리브영의 글랜우드 지분 재매입 결정에 따라 CJ올리브영이 2022년 잠정 중단한 IPO 재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22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계획했지만 시장 침체 여파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뷰티 업계에서 CJ올리브영 유가증권시장 입성은 '시점'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다"며 "현재 CJ올리브영의 성장세를 미루어 보면 상장을 위한 기반은 마련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증권 업계에서는 CJ올리브영이 IPO보다는 지주사인 CJ(와)의 합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한 '신유통' 사업군은 CJ그룹 4대 핵심 사업으로, CJ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장인화 회장 "과감한 도전으로 초격차·초일류 기업 거듭나자"

포스코그룹 창립 56주년

"한 발 앞서기 위해 기본 다져야
정확한 문제 인식이 도약 출발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초격차,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장인화 회장은 1일 창립 56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 발 더 앞서기 위해 기본을 다져야 한다"며 "위기의 시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와 품질 경쟁력을 갖춰 놓으면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1968년 4월 1일 제철 보국이라는 소명으로 설립된 이후 국내 철강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기존의 철강사업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탄소 전환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차전지 소재 사업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 회장은 "취임 직후 '100일의 현장동행'을 시작해 그룹 모태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미래 성장동력인 이



차전지소재 현장 등을 다니고 있다"며 "회사의 발전과 새로운 비전을 향한 현장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며 역경에 맞선 불굴의 창업 정신과 선배들의 노고가 떠올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우리는 지난 56년간 끊임 없는 도전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때 비로소 초격차,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인화 회장은 임원진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박태준 명예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포스코홀딩스의 전신인 포항제철을 일으켜 세운 인물이다. 제철보국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의 창업 건설·경영에 평생을 바쳤다. /양성운 기자 ysw@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1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오른쪽)과 논의하는 모습. /금융위

"오는 7월 시행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문제 해결책 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소상공인 민생금융 신속집행 강조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약속도

"ELS 사태는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ELS 등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장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지주 계열 은행장, 지방은행협의회 의장인 광주은행장이 참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2월 고금리로 대출상환을 해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환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행들은 나머지 6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

금리 대한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보통료·전기료·통신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학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변화·혁신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를 출자하고,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두배 상향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될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책무구조도는 최근 금융권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5대은행 기업대출 한 달 새 7.5조 늘었다

주택매매 거래 줄자 가계대출 감소
은행권, 기업대출로 영업 확대 노력
경기침체 지속... 건전성 강화 필요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이 이어지며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3억5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695조7922억원)과 비교해 2조2238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가계대출잔액은 지난해 4월(-3조3915억원) 이후 11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 11개월만에 감소세 전환
가계 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는 전국 5만7105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8869호 줄었다. 부동산 거래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말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6조647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4494억원 줄었다.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대비 줄어든 것도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이동한 영향도 있지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매매 거래가 줄면서 더 크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했다"며 "분양, 전세거래 등 주택 매매 거래가 줄고 있어 당분간 가계대출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한달새 7조 증가

반면 기업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5대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5415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7조4975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171조4743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3319억원 늘었

다. 증가액은 지난 1월 2조5200억원에서 2월 2조8606억원, 3월 2조3319억원으로 매달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역시 640조0672억원을 기록하며 전달 대비 5조1655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은행들이 많아졌다"며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회사채보단 은행대출이 낫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추가대출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대은행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이자여신비율은 5곳 모두 증가했다. 고정이자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나유리 기자